



(사)한국포장협회

제272차 이사회 개최

(주)창성엔지니어링 가입 승인

(사)한국포장협회(회장 임경호)가 지난 1월 11일 협회 회의실에서 제272차 이사회를 열었다.

이날 이사회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대면회의가 어려워 화상회의로 진행되었다.

이사회에서는 제36기 포장기술관리사 통신교육 결과 및 제37기 포장기술관리사 통신교육 시행 보고, 러시아 화상상담회 진행 결과 보고, 2022년 정부지원 해외전시사업 보고, 2021년 협회 수지결산 보고, 2022년 협회 사업계획 보고, 협회 창립 30주년 행사 진행 논의, 총회 진행 논의, 한용교 포장인상 및 협회장상 진행 보

(사)한국포장협회 제272차 이사회 결과 보고

- | | |
|--|---|
| 1. 제37기 포장기술관리사 통신교육 시행보고
- 교육기간 : 2022년 3월 21일~6월 3일(11주) | - 협회 창립 30년사 발간 준비 |
| 2. 제36기 포장기술관리사 통신교육 결과보고
- 교재 보완, 제37기부터 개정판 활용 | 8. 제32차 정기총회 진행 논의
- 2022년 2월 18일 개최 예정 |
| 3. 러시아 화상상담회 진행 결과 보고
- 회원사들의 적극적인 참여 요청 | 9. 협회장상 · 한용교포장인상 심의 일정 논의
- 1월 26일 심의 |
| 4. 2022년 정부지원 해외전시사업 보고
- 회원사 수출 활성화 및 시장 개척에 적극 활용
- 신규 시장 개척 및 화상 상담회 활성화 | 10. 공로상 추천
- 1월 26일 심의 |
| 5. 2021년 협회 수지결산 보고(요약)
- 원안대로 승인
- 세부내용은 정기 감사에서 논의하고, 그 결과는 총회에서 보고 | 11. 감사 일정
- 1월 26일 감사 |
| 6. 2022년 사업계획 보고(요약)
- 원안대로 승인
- FITI, KOTITI 등 시험연구원과의 협약 등 회원사에 도움
줄 수 있는 사업 추진 | 12. 탈회회원 보고
- 원안대로 승인 |
| 7. 협회 창립 30주년 행사 진행 논의 | 13. 신입회원 가입 심의
- 신청업체 : (주)창성엔지니어링 가입 승인 |
| | 14. 기타사항
가. 임원 개선
나. 회원사 실태조사
다. 2022년 연간계획서 |



▲ (사)한국포장협회(회장 임경호)가 지난 1월 11일 협회 회의실에서 제272차 이사회를 열었다.

고, 신입회원 가입 심의, 탈회회원 보고 등의 안건이 승인되었다.

또한 회원 가입을 신청한 (주)창성엔지니어링의 가입을 승인하고 협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당부했다.

(사)한국포장협회

제37기 포장기술관리사 교육생 모집

3월 21일부터 6월 3일까지 진행

(사)한국포장협회(회장 임경호)는 제37기 포장기술관리사(Packaging Professional) 통신교육생을 모집한다.

이번 교육은 3월 21일부터 6월 3일까지 11주간 진행되며, 접수마감은 3월 18일(금)까지이다.

수강료는 일반 포장관련 기업, 연구소 및 단체는 30만 원, 포장협회 회원사는 24만 원, 포장공학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4년제 또는 2년제)은 15만 원이다.

교육관련 문의 및 신청은 (사)한국포장협회(TEL 02-2026-8655)로 하면 된다.



▲ 제37기 포장기술관리사 교육내용 및 일정

주 별	연/월/일	과 목	교재발송	시험답안접수
제 1 주	22. 3. 21~25	• 포장개요 • 지류포장	22. 3. 21	22. 4. 2
제 2 주	22. 3. 28 ~4. 1	• 플라스틱 포장재	22. 3. 28	22. 4. 9
제 3 주	22. 4. 4~8	• 금속포장(제관) 및 유리병	22. 4. 4	22. 4. 16
제 4 주	22. 4. 11~15	• 목재포장재 및 포장부자재	22. 4. 11	22. 4. 23
제 5 주	22. 4. 18~22	• 방수 · 방습 · 방청 · 완충 · 중량물 포장기법	22. 4. 18	22. 4. 30
제 6 주	22. 4. 25~29	• 포장인쇄기법 및 기타 포장기법	22. 4. 25	22. 5. 7
제 7 주	22. 5. 2~6	• 식품 · 의약품 포장기법	22. 5. 2	22. 5. 14
제 8 주	22. 5. 9~13	• 포장기계	22. 5. 9	22. 5. 21
제 9 주	22. 5. 16~20	• 포장과 환경	22. 5. 16	22. 5. 28
제10주	22. 5. 23~27	• 물적유통 및 포장디자인 · 마케팅	22. 5. 23	22. 6. 4
제11주	22. 5. 30~6. 3	• 포장시험 및 포장관련법규	22. 5. 30	22. 6. 11
종합시험		• 종합시험문제 발송	22. 6. 6	22. 6. 18
최종심의 완료			22. 7. 4	
수강자 통보(심의통과)		• 관리사증 발송	22. 7. 11	

창성엔지니어링(주)

포장협회 신입회원 가입

VOCs 저감기술 등 공기조화 전문기업

창성엔지니어링(주)(대표이사 김창근)이 (사)한국포장협회의 신입회원사로 가입했다. 창성엔지니어링(주)은 1999년 8월 창업 이래 창의적인 기술력과 도전 정신으로 끊임없이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산업공기조화 분야의 국내 대표 기업이다. 동사는 VOCs 저감기술, 공조설비 제작, 산업환기 등을 통해 다음 세대에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하이브리드 가변 농축 촉매연소기 ‘이지클린 VOCs™’ 등 신기술을 개발, 적용하여 기업과 국가가 당면하고 있는 환경문제를 개선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창성엔지니어링 관계자는 “산업공기조화 분야에서 국내 1위를 넘어 세계 초일류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임직원 모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창성엔지니어링(주)

주소 :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벤처소로 15번길 15
 주요생산품목 : 대기오염 저감장치, 공조기기설비
 TEL : 062-971-0011 FAX : 062-974-9862
 홈페이지 : <http://www.ecse.co.kr>

회원사의 창립기념일을 축하드리며 끊임없는 발전과 성장이 계속되기를 기원합니다.

(사)한국포장협회 회원사 임직원 일동

[주]진명하이텍

2007년 2월 9일 창립 15주년

[주]화승케미칼

2018년 2월 1일 창립 5주년

화신기계공업(주)

1977년 2월 22일 창립 45주년

창립기념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울촌화학

‘2022 월드스타 패키징 어워드’ 수상

소재부품장비 으뜸기업 선정

울촌화학(대표이사 송낙정)은 친환경 포장재 수요에 맞춰 자체 개발한 재활용이 용이한 고차단성필름 ‘ECOBY-OPP’가 지난해 12월 15일 세계포장기구(이하 WPO)가 선정하는 ‘2022 월드스타 패키징 어워드’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WPO는 1968년 설립된 세계 포장협회들을 중심으로 설립된 비영리 국제기구로, 1970년부터 패키징 디자인



및 기술 발전을 위해 공헌한 혁신적 제품들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율촌화학은 지난해 5월 대한민국패키징대전(KOREA STAR AWARDS 2021)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ECOBY-OPP’를 출품해 탁월한 친환경성을 인정받아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수상은 오는 5월 4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ECOBY-OPP’는 내용물의 변질을 막기 위해 사용하는 산소 차단용 알루미늄 재질을 대체할 수 있는 소재로, 컵 커피 용기 재질과 동일한 재질을 사용하기 때문에 기존 용기와 달리 재활용이 용이한 친환경 소재이다.

또한 율촌화학은 지난 1월 10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소재부품장비 으뜸기업으로 선정됐다.

산자부는 2024년까지 소부장 핵심전략기술 분야에서 국내 최고 기술력과 미래 성장 잠재력을 가진 기업 100곳을 선정해 집중 육성하는 정책을 시행 중으로, 지난해 1기 기업 22곳을 선정한 것에 이어 올해 율촌화학을 포함한 21개 기업을 소재부품장비 으뜸기업으로 선정했다.

율촌화학은 ‘이차전지 패키징 소재부품 제조기술’로 인정을 받았다. 동사는 정부로부터 향후 5년간 으뜸기업 전용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기술개발·사업화·글로벌 진출 등 다양한 지원을 받는다.

한편, 송녹정 율촌화학 대표이사는 지난해 11월 ‘제7회 중견기업인의 날 기념식’에서 산업포장을 받은 바가 있다. 송 대표이사는 대일 의존도 100%의 2차 전지 파우치셀을 국산화·양산화하는 등 경영 및 R&D 역량을 집중해 2011년 취임 이후 10년 만에 5,206억 원의 매출을 기록, 38%의 성장을 이끌었다.

롯데알미늄

조일알미늄과 장기공급계약 체결

2년간 1,595억 원 규모



▲ 조일알미늄(대표 이영호, 사진 왼쪽)과 롯데알미늄(대표 조현철, 사진 오른쪽)이 지난 1월 5일 서울 독산동 롯데알미늄 본사에서 이차전지용 양극박 소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롯데알미늄(대표 조현철)이 알루미늄 압연기업 조일알미늄(대표 이영호)과 이차전지 양극박 소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계약 금액은 1,595억 원 규모이며, 계약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지속된다.

올해 계약 금액은 532억 원, 2023년에는 1,063억 원으로 발표됐다.

이번 계약에 앞서 양사는 지난해 8월 25일 이차전지용 양극박 소재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다.

코오롱인더스트리

CSO 부문장에 허성 부사장 임명

미래전략실과 EX(Energy X-change) 사업단

코오롱인더스트리가 조직 개편을 통해 신성장동력 발굴을 가속한다.

코오롱인더스트리는 미래 사업을 총괄하는 기업전략부문(Corporate Strategy Office · CSO)을 신설하고, 허성 부사장을 부문장에 임명했다고 1월 12일 밝혔다.

CSO는 미래 먹거리 발굴과 사업 환경 변화에 선제 대응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허성 CSO장은 미국 메탈세일즈 구매부문 부사장과 세계 도료(페인트) 분야 1위 '악조노벨' 총괄이사를 거쳤다. 2014년부터 3년간 삼화페인트 사장을 역임하고, 한화L&C 등에서 최고운영책임자(COO) 등 30여 년간 화학산업 경력을 쌓았다.

CSO는 미래전략실과 EX(Energy X-change) 사업단으로 편제됐다. 미래전략실은 아라미드 등 주력사업 선도 지위를 강화하고 산업소재, 화학, 필름·전자재료 등 전 사업 부문에 걸쳐 전략적 인수합병(M&A), 합작법인(JV) 설립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EX사업단은 연료전지 및 수소 생산·저장 관련 기술 개발 구체화, 차세대 이차전지 소재 개발, 미래 에너지 사업 확대 등 에너지 패러다임 변화에 앞장선다.

장희구 코오롱인더스트리 사장은 “CSO는 미래 지향적 사업을 발굴하는 중추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면서 “100년 코오롱을 지탱할 사업 구조와 실행 전략을 만들고 외부와 협력으로 새 성장동력 발판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효성화학

나일론필름사업 중국법인 지분 100% 취득

238억 6,400만 원 현금으로

효성화학이 나일론필름 생산 및 판매를 주요사업으로 하는 중국법인 지분을 취득한다.

효성화학은 새로 설립된 효성필름 중국법인(Hyosung Film(Quzhou)) 지분 100%를 취득한다고 1월 14일 공시했다.

취득금액은 237억 6,400만 원으로 2020년 효성화학 연결기준 자기자본의 5.91% 규모다.

효성화학은 현금으로 효성필름 중국법인 지분을 취득한다.

효성화학 관계자는 “글로벌 나일론필름 수요 성장에 맞춰 중국에 신규법인을 설립해 운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화승케미칼

화학연구원과 데이터 · 인공지능 소재개발 협력

점 · 접착소재 물성데이터 구축 등

화승케미칼과 한국화학연구원이 데이터 인공지능 기반 소재 기술개발 협력에 나선다.

화승그룹의 정밀화학 기업 화승케미칼(대표 우석훈)이 한국화학연구원(원장 이미혜)과 점 · 접착제 소재 데이터 표준화 및 인공지능 모델 개발을 위한 기술협력을 체결했다고 1월 18일 밝혔다.

이번 기술협력은 신발 및 산업용 점 · 접착소재에 최근 R&D 패러다임인 ▲데이터 기반 소재정보학(MI)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 개발 프로세스를 기존 대비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연구개발 과정에서 생성되는 소재 데이터를 수집한 후 개발하려는 소재를 인공지능 기술이 시뮬레이션해 원하는 소재 물성의 사전 예측과 소재 적용 제품의 성능 예측이 수월해진다.

나아가 개발 시행착오로 인한 시간과 비용 단축은 물론 고객사의 세부 니즈에 부합하는 커스터마이징 소재 개발이 가능하다.

양사는 앞으로 약 15개월간의 개발 기간을 거쳐 기술 실용화에 들어가게 되며 ▲화승케미칼은 점 · 접착소재 물성 데이터 구축, ▲한국화학연구원은 소재 데이터 표준화와 인공지능 모델 개발을 각각 맡을 예정이다.

한편 화승케미칼은 올해 ESG경영을 실현하기 위해 탄소저감 및 친환경 점 · 접착소재를 활용한 신제품을 개



▲ 화승케미칼과 한국화학연구원이 인공지능 물성 예측 시스템 및 소재데이터 표준화기술 협약을 체결했다.

발 중이며, 글로벌 파트너십을 확대하는 등 관련 사업을 가속화할 방침이다.

우석훈 화승케미칼 대표는 “화학소재솔루션센터와 함께 인공지능을 이용하는 MI(Materials Informatics)를 개발 도입해 제품 개발기간을 단축하고 소재 설계 효율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글로벌 기술 확보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화학연구원 화학소재솔루션센터장인 최우진 박사도 “화승케미칼의 전문 기술력을 바탕으로 점·접착 소재 개발 부문에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해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한다”며 “데이터 표준화 구축과 인공지능 모델 개발에 주력하여 실용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오리온

국내 식품업계 최초 ‘글로벌 탄소배출 통합관리 시스템’ 도입

‘글로벌 친환경 경영’ 본격화

오리온은 '글로벌 탄소배출 통합관리 시스템'을 오픈하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고 1월 13일 밝혔다.

글로벌 탄소배출 통합관리 시스템은 한국, 중국, 베트남, 러시아 등 국내외 오리온 사업장 및 생산 공장의 온실가스 배출량, 배출권, 배출시설 현황 등 주요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웹 기반의 시스템이다. 한국어와 영어는 물론, 중국어·베트남어·러시아어 등 총 5개 언어로 운영함으로써 현지 직원들도 손쉽게 데이터를 입력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했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법인까지 탄소배출량을 통합관리하는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는 것은 국내 식품업계 최초 사례다.

오리온은 이를 활용해 그룹 차원의 연간 탄소배출량 목표를 설정하고 데이터 통합 관리 및 온실가스 저감 활동을 실행할 계획이다. 이행 실적은 ESG 강화 차원에서 공식 홈페이지 등을 통해 외부에 투명하게 공개할 방침이다.

지난해 10월에는 한국표준협회로부터 국내외 법인 사업장들의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해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제3자 검증을 국내 식품업계 최초로 완료한 바 있다.

오리온은 윤리경영과 연계한 다양한 친환경 활동을 지속해오고 있다. 지난해 3월 생산, 설비, 관리 등 6개 부서 담당자로 구성된 ‘그린 TFT(Green Task Force Team)’를 신설해 글로벌 차원의 탄소배출 통합관리 체계를 구축, 실행하고 있다. 청주공장과 익산공장은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높이 평가받아 농림축산식품부의 ‘온실가스 감축지원 사업’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되었으며, ‘제47회 전국품질분임조경진대회’에서는 청주공장 ‘Only 오리온’ 분임조가 온실가스 저감 성과를 인정받아 최고상인 대통령상 금상을 2년 연속 수상했다. 이밖에도 중국법인은 량방공장의 스윙칩 프라이어와 보일러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회수·재활용하는 설비를 구축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였다. 베트남 법인은 미폭공장 지붕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해 제품 생산에 활용하는 등 글로벌 친환경 활동도 적극 펼치고 있다.

오리온 관계자는 “국내 식품업계 최초로 글로벌 탄소배출 통합관리 시스템을 운영함에 따라 실질적인 온실

가스 저감화 활동의 기반을 마련했다”며 “친환경을 비롯해 그룹 경영방침인 윤리경영에 기반한 ESG 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

녹색기업 지원사업에 4,176억 원 지원

환경산업체 성장 및 친환경 전환 지원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우수한 환경기술이나 아이디어를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의 성공을 돕고, 일반 제조업 공장의 친환경·저탄소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총 1,176억 원 규모의 지원사업과 함께 3,000억 원 규모의 정부 재정융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에는 환경분야 창업을 지원하는 ‘에코스타트업 지원 사업’, 우수 환경기술 가진 중소·중견환경기업을 지원하는 ‘중소환경기업 사업화·상용화 사업’, 재활용 기업을 지원하는 ‘재활용 산업 육성 지원 사업’이 포함됐다.

또한 일반 제조업 공장의 탄소중립 달성과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지원을 위해 오염물질, 온실가스 등을 종합 개선하는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 사업’도 추진한다.

환경부는 지원사업 외에도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를 통해 중소·중견 환경기업 등을 지원하고, 일반 기업의 환경오염저감 설비 설치 등 기업의 녹색전환 확대를 이끈다.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은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 창업기업과 창업한지 7년 이내의 초기 창업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약 150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자금지원 및 진단·상담(컨설팅·멘토링) 등을 지원한다.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 창업기업은 최대 5천만 원을, 7년 이내 초기창업기업은 최대 1억 원의 자금 지원을 받게 되며, 창업교육, 경영, 마케팅, 회계, 특허 등을 진단 및 상담 형태로 제공한다.

신청 및 접수 기간은 1월 20일부터 2월 18일까지 30일간이며, 사업공고문, 사업안내서 등 세부사항은 환경부(www.me.go.kr)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www.keiti.re.kr) 누리집 또는 에코스타트업사업(www.eco-startup.kr)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중소환경기업 사업화·상용화 지원사업’은 우수 환경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초기 시장 진입부터 판로 개척까지 성장 단계별 맞춤형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에는 총 392억 원 규모의 사업화·상용화 자금을 투입할 예정이다. 올해부터는 사업화 촉진, 제품화, 현장적용, 시장진출 등 지원사업의 전 과정을 세분화했으며,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2개 이상 과정을 선택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화 지원사업은 총 307억 원 규모로 115여 개 기업을, 상용화 지원사업은 총 85억 원 규모로 15여 개 기업을 각각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 지원사업 공고 및 접수 기간은 1월 20일부터 2월 18일까지 30일간이며 사업공고문, 사업안내서 등 세부사항은 환경부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 또는 사업화지원시스템(s.konetic.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재활용 산업 육성 지원사업’은 폐자원에 새로운 아이디어와 디자인을 더해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생산하는 재활용 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업의 창업연도, 매출액, 재활용제품 보유여부 등 기업 성장단계(3단계: 도전, 성장, 도약)에 따른 맞춤형 사업화 자금을 기업당 최대 1천만 원에서 1억 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재활용 산업의 안정적인 정착과 발전기반이 될 재활용 소재 수급 및 가공기업을 대상으로도 사업화 자금을 최대 1억 원을 지원한다.

올해 지원사업 공고 및 접수 기간은 1월 20일부터 2월 18일까지 30일간이며, 사업공고문, 사업안내서 등 세부사항은 환경부 및 한국환경산업협회(www.keia.kr) 누리집 또는 재활용종합포털(www.upcycclus.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은 그린뉴딜 3대 분야 중 하나인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을 위해 2020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오염물질 배출 저감, 온실가스 저감, 자원·에너지 효율화, 스마트시설 도입 등 종합적인 친환경·저탄소 설비 개선을 통합 지원해 친환경 제조공장의 선도 본보기(모델)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올해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은 역대 최대 규모인 예산 606억 원, 60개 기업을 대상으로 제조업 공장의 녹색공간 전환을 위해 기업당 최대 10억 원의 자금과 전문가 상담을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 지원사업 공고 및 접수기간은 1월 20일부터 2월 22일까지 34일간 진행되며, 사업공고문, 사업안내서 등 세부사항은 환경부 및 한국환경공단(keco.or.kr)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미래환경육성용자’는 환경산업체 육성과 환경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자금을 장기간 낮은 금리로 용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환경산업체 육성을 위해 총 2,000억 원,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해 총 1,000억 원 규모의 용자를 제공한다. 1월 20일 공고 이후에 매달 초에 용자 접수를 받을 예정이며, 매달 용자 규모의 상한선이 없기 때문에 조기에 용자금이 소진될 수 있다.

2월 접수기간은 2월 7일부터 11일까지 5일간이며, 사업공고문, 사업안내서 등 세부사항은 환경부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 또는 환경정책자금용자지원시스템(loan.keiti.re.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지원사업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환경기업뿐만 아니라 녹색전환을 준비 중인 모든 중소·중견기업에게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녹색산업 육성을 통해 탄소중립 달성 및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환경부

중복규제 개선 등 합리화로 화관법 이행력 강화

취급시설 검사 관련 불합리한 수수료 면제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중복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전자민원처리로 민원인의 행정편의를 높이고 불합리한 수수료를 면제하는 등 각종 개선사항이 반영됐다.

우선 ‘화관법’에 따른 민원업무를 전자민원창구(화관법 민원24, icis.me.go.kr>cdems)를 통해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가 마련됐다. 지난해 8월에 개정된 화관법에서 전자민원 처리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이번 시행규칙에서는 신청건수가 많은 영업허가 등 21개 민원업무를 ‘화관법 민원24’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업무 범위를 구체화했다. 담당 공무원이 민원인의 동의를 얻어 결격사유나 기술인력 적합 서류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여 별도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영업허가 업무를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사업자의 자체 점검서식을 개선하고 불합리한 검사 수수료를 면제하는 등 현장에 맞게 규제를 개선했다. 사업장 화학사고를 줄일 수 있도록 취급시설의 자체점검대장에 액체 유해화학물질의 유·누출 방지를 위한 집수시설의 성능 유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또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와 관련하여 불합리한 수수료를 면제하여 부담을 줄였다.

이 외에도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관리가 되고 있는 생활화학제품의 경우 화관법의 중복된 규제를 해소했다.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과 승인받은 살생물제품(생활화학제품에 한함)은 안전성 확인을 거쳐 그에 맞는 안전·표시기준, 안전성조사 등의 안전 관리가 되고 있으므로 화관법에 따른 개인보호장구 착용 및 취급시설의 설치기준 준수 의무를 제외했다.

손삼기 환경부 화학안전과장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안전한 유해화학물질 관리체계를 빈틈없이 유지하면서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규제는 국민의 눈높이와 산업현장의 여건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해 화관법의 이행력을 높ی겠다”라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

4년 새 즉석조리식품 시장규모 145%, 수출 323% 성장

2021 가공식품 세분시장 현황 보고서(즉석조리식품) 발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는 즉석조리식품에 대한 2021년 세분시장 보고서를 발간하였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식품업계에 가치 있는 시장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경쟁력을 강화하고, 식품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2010년부터 매년 가공식품 세분시장 현황조사를 추진해오고 있다. 이번 보고서에는 즉석조리식품의 생산 및 출하, 수출, 유통 및 판매 현황, 국내외 시장 동향 및 전망, 소비 경향 등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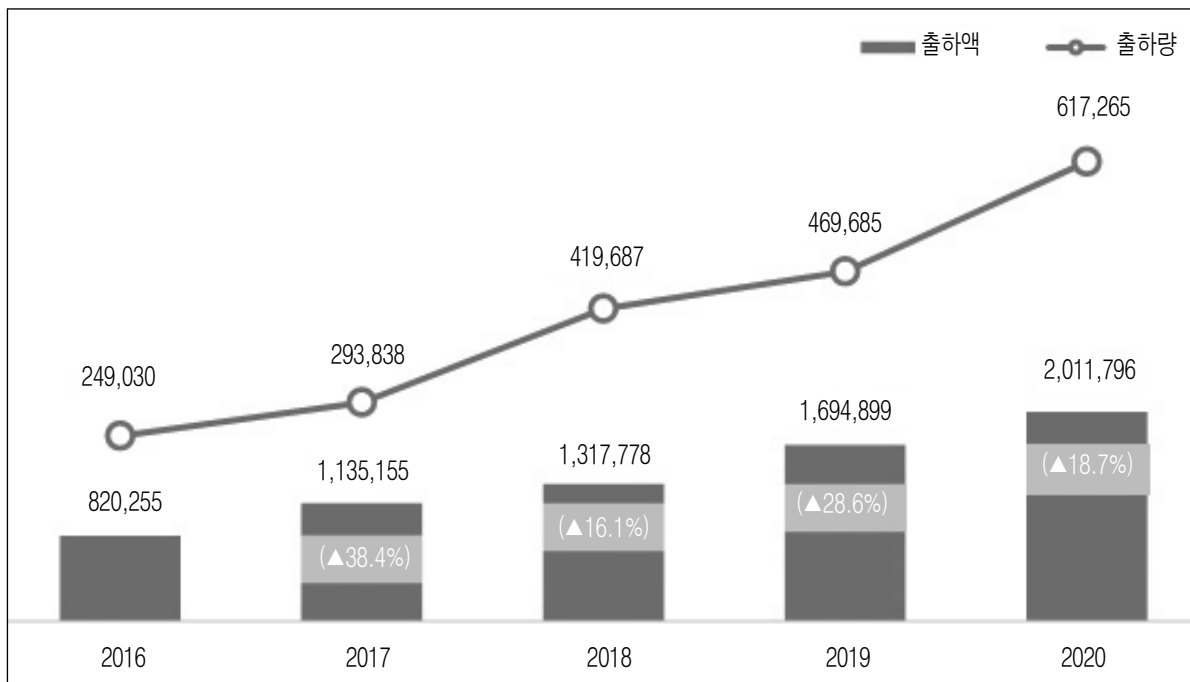
2020년 출하액 기준 즉석조리식품의 국내 시장 규모는 2조 118억 원으로 전년 대비 18.7%, '16년 대비 145.3% 증가하였다. 즉석조리식품 시장규모는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며, 그 요인은 편의점 확대, 품질향상, 코로나19로 인한 집밥 수요 증가, 가정 내 에어프라이어 보급률 증가 등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즉석조리식품의 소비 경향 및 시장 전망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온라인 소비자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대다수가 즉석밥(82.8%), 카레/짜장/덮밥소스류(77.4%), 국/탕 찌개류(75.6%)를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조사개요 : 최근 3개월 내 즉석조리식품 구입 경험이 있는 20~69세 소비자 500명 대상('21.10.)). 최근 들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간편조리세트(밀키트) 또한 63.6%의 높은 구입 경험률을 보이고 있다.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 구입이 증가했다고 인식하고 있는 즉석조리식품은 간편조리세트(밀키트) (66.0%), 국/탕/찌개류(54.2%), 즉석밥(42.5%)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집밥 수요 증가, 맞벌이·1인 가구 증가, 간편하게 끼니를 해결하려는 경향 등 복합적인 이유로 간편조리세트(밀키트) 시장이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소비자가 선호하는 즉석조리식품으로는 한 끼 식사 대용이 가능한 제품(24.8%)이 가장 높았으며, 좋은 맛, 높은 품질의 제품(22.8%), 전국 맛집/유명 음식점 포장 제품(20.2%) 순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들은 즉석조리식품을 식사 대용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한 끼를 먹더라도 맛있는 음식을 즐기려는 욕구가 강한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즉석조리식품 수출액은 3,493만 달러로 전년 대비 35.1%, 2016년 대비 323.1% 증가하였고, 수출 물량도 1만 3,563톤으로 전년 대비 20.0%, 2016년 대비 390.7% 증가하였다. 특히 즉석조리식품의 대표 식



▲ 즉석조리식품 출하 현황

품인 즉석밥(‘20년 수출액 전년 대비 53.3% 증가)과 떡볶이(56.7% 증가)의 수출 성장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최근 해외 시장에서 온라인 영상 콘텐츠를 통한 한국 음식문화의 노출이 증가하고 있고,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먹방 영상이 인기를 끌며 직접 먹어보려는 사람이 늘어난 영향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떡볶이는 세계적인 인기의 케이팝 그룹을 통해 소개되며 수출 증가 추세를 이어나가고 있다.

즉석조리식품 생산 및 유통·판매 현황, 소비 특성 등에 대한 정보는 식품산업통계정보 누리집(<http://www.aTFIS.or.kr>)에 게재된 ‘2021 가공식품 세분시장 현황(즉석조리식품)’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농식품부

농림식품 신기술(NET) 11건 신규 인증

고차단성의 친환경 종이 포장재 합지 제조기술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고차단성의 친환경 종이 포장재 합지 제조기술’ 등 11개 기술을 농림식품 신기술(NET)로 인증하였다고 밝혔다.

‘농림식품신기술 인증제도’는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하거나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우수기술을 대상으로 기술성, 경제성, 경영성을 종합 평가하여 정부가 신기술로 인증하는 제도이다. 2021년 하반기에는 36개 기술을 신청받아 최종 11개 기술을 인증하였으며, 기존 인증기술 중 유효기간 연장심사를 거쳐 4개 기술의 유효기간을 2년 연장하였다.



▲ (주)소프트팩의 ‘고차단성의 친환경 종이 포장재 합지 제조 기술’ (좌)과 (주)지큐지원의 ‘나노발포 구조체를 이용한 선택적 통기성 발효식품 포장지 제조기술’ (우)이 농림식품 신기술(NET)로 인증받았다.

이번에 신규로 인증된 ‘고차단성의 친환경 종이 포장재 합지 제조 기술’은 기존 종이 포장재에 생분해성 바이오 플라스틱과 수성 접착제 등을 적용한 100% 생분해성 친환경 종이 포장지 제조기술로, 유통 및 식품 저장용 포장재의 친환경성과 재활용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이랑 세우기(휴립) 피복기용 자동비닐 자르기(커팅) 기술, 파릴렌을 이용한 보존화 나노

코팅 기술 등이 포함되었다.

이번에 인증된 11개 신기술의 유효기간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최대 3년이며, 농식품부는 혁신제품 지정 신청을 통한 공공조달 연계, 농식품연구개발사업 지원 등으로 인증업체의 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인증신기술 세부정보 및 신기술인증제도와 관련된 사항은 ‘농림식품신기술인증제 누리집 (www.newat.or.kr)’에서 확인 가능하며, 2022년도 상반기 신기술인증 신청·접수는 2022년 2월 초에 시행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과학기술정책과 김영수 과장은 “탄소중립, 디지털, AI 등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주도할 수 있는 신기술을 지속적으로 발굴·인증하여 혁신기술이 농업 분야에서 활용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안전보건공단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비 지원

사업장당 10억 원까지 산재예방시설 용자금 지원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직무대리 송병춘)은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사업장의 안전·보건시설 개선을 유도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산재예방시설 용자금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산재예방시설 용자금 지원사업’은 자금 여력이 부족한 사업장에 유해·위험 기계·기구나 방호장치 등 산재예방시설 투자비용을 장기·저리 조건으로 용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총 3,563억 원(21년 대비 335억 원 증액)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및 산재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민간기관(고용노동부 승인)으로, 특히 재정 여건이 취약한 50인 미만의 고위험 사업장 및 직업계고 현장실습 참여기업 등에 우선 지원된다.

다만 산재보험료 체납 사업장, 최근 3년(‘19년~‘21년)간 정부지원 정책자금 지원합계 100억 원 초과 사업장, 당해연도 보조금 결정 사업장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사업장당 최대 10억 원 한도로, 설비 등 투자비용에 대한 공단 판단금액의 100%를 연리 1.5% 고정금리로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지원한다.

특히 최근 10년간(‘11~‘20년) 제조업의 끼임·추락 사고사망의 73.6%를 차지하는 고위험 3대 업종(①기계기구·금속·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②화학및고무제품제조업, ③수제품및기타제품제조업)의 위험공정 개선을 통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그동안 당해 연도 보조금과 용자금의 중복지원을 금지한 한계를 타파하고, ‘22년부터 안전투자혁신사업 보조금(노후 뿌리공정·사고사망 고위험 3대 업종 위험공정개선 소

요비용의 일부(50%, 최대 1억원 한도)를 지원하는 사업)은 예외적으로 융자금과 동시 지원한다.

지원품목은 안전성이 확보된 위험기계 및 작업공정·환경 개선 설비로, 다음과 같다. ▲유해 또는 위험 기계·기구 신규 설치 및 교체(읍선 등 부속설비 포함, CNC머시닝센터 등 공작기계, 사출성형기, 산업용 로봇, 컨베이어, 크레인, 프레스 등), ▲유해 또는 위험 기계·기구에 설치해야 할 방호장치, ▲안전 또는 보건상의 조치 이행을 위한 산업재해 예방 시설 및 장비, ▲안전인증대상 방호장치 및 보호구 제조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이다.

지원신청은 1월 3일부터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단 일선기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대표전화 1544-3088로 문의하면 된다. 다만, 안전투자혁신사업의 위험공정개선 지원 사업장은 먼저 지원금을 신청한 후 결정된 사업주 부담금에 대한 융자금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안전보건공단 관계자는 “2022년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며 ESG 경영 등 기업의 안전보건 경영이 중요 시되는 해이다”라며 “공단은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에 재정 지원하여 산업현장의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과 재해예방에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패키징기술센터

2022 대한민국 패키징 대전 공모

기업 및 공로부문 신청접수 4월 15일까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패키징기술센터(센터장 심진기)는 ‘2022 대한민국 패키징 대전(KOREA STAR AWARDS 2022)’의 기업부문, 학생부문 및 공로부문 신청을 접수한다고 1월 17일 밝혔다.

국내 패키징산업의 기술개발 및 패키징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함으로써 관련 종사자의 사기진작 및 기술개발 의욕을 고취하고, 국내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패키징기술센터와 산업통상자원부는 해마다 정부포상을 실시하고 있다.

KOREA STAR AWARDS 2022는 코리아스타상 기업부문에서는 국무총리상 1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5점 등 총 26점, 코리아스타상 학생부문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1점 등 13점, 코리아스타상 공로부분은 2점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 등이 수여된다.

기업 및 공로부문의 신청접수는 4월 15일까지, 학생부문은 4월 22일까지이며 시상식은 6월 14일 KINTEX에서 열릴 예정이다.

서류 접수 및 문의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패키징기술센터로 하면 된다(Tel : 032-624-4778, e-mail : shpark@kitech.re.kr).

한국공예 · 디자인문화진흥원

한식도시락 패키지 디자인 공모

한식문화 본연의 가치를 알릴 새로운 패키지 디자인

세계인에게 한식문화의 매력을 전할 특별한 한식도시락을 직접 디자인해볼 기회가 찾아왔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공예 · 디자인문화진흥원(원장 김태훈, 이하 공진원)은 2월 11일까지 ‘2022 한식도시락 패키지 디자인 공모전’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2021년 프랑스 파리에서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한식도시락 캠페인 <소반>의 뒤를 이을 한식도시락 패키지 디자인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했다. 소반, 찬합, 초배기, 보자기 등 전통문화 요소를 가미해 제작된 기존 한식도시락처럼 한식문화 본연의 가치를 알릴 새로운 패키지 디자인을 제안받는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개인 또는 팀을 구성해 참여할 수 있으며(기업 참여 불가) 전통문화 요소를 살린 한식도시락 패키지를 디자인해 참가신청서와 함께 이메일(hansik_dosirak@naver.com)로 제출하면 된다. 심사는 ▲주제적합성 ▲독창성 ▲실용성 ▲완성도 ▲종합성 등을 평가해 총 4점의 수상작을 선정한다. 시상 규모는 총 400만 원으로, ▲최우수상 1점 300만 원 ▲우수상 1점 100만 원 ▲장려상 한식 미니 소반 세트를 상장과 함께 수여한다. 또한 수상작의 경우, 향후 진행되는 국외 한식도시락 캠페인의 새로운 패키지로 제작될 예정이다.

공진원 관계자는 “2021년 파리 현지에서 큰 호응을 얻은 한식도시락 캠페인 <소반>의 뒤를 이을 한식문화 캠페인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나만의 패키지 디자인으로 세계인에게 한식문화 고유의 가치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전통문화를 담은 한식도시락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한식문화를 널리 알리기 위한 공모전인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공모 요강 및 제출규격 · 제출양식 등 자세한 내용은 한국공예 · 디자인진흥원 공식 누리집(www.kcdf.kr)과 전통문화포털(<https://www.kculture.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국포장기술사회

포장기사 국가기술자격시험 대비 교육 실시

3월 5일부터 4월 9일까지 6주 진행

(사)한국포장기술사회(회장 이한영)는 3월 5일부터 4월 9일까지 6주간 ‘포장기사 국가기술자격시험 대비 및 포장기술실무자를 위한 교육’을 경기도 안양에 위치한 SK V1센터 611호 에듀케어교육장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성이 커지고 있다”며 “국내 포장산업이 FITI시험연구원의 포장재 시험분석서비스를 통해 재활용 용이성을 제대로 평가받고 자원순환형 사회 실현에 한 축을 담당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KOTITI시험연구원

포장재 시험분석 서비스 개시

포장재 재질 · 구조 평가 등

(사)KOTITI시험연구원(원장 이상락)이 식품 포장, 산업용 제품 포장 등 다양한 분야에 사용되는 포장재의 원료 및 제품에 대한 시험분석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KOTITI시험연구원은 ▲포장재 재질 · 구조 평가, ▲역학 및 신뢰성, ▲식품용 기구 및 용기 · 포장 등 3가지 분야로 나눠 포장재 시험분석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먼저 포장재 재질 · 구조 평가 분야에서는 환경부고시 제2021-3호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등급’을 구분할 수 있고, 역학 및 신뢰성 분야에서는 포장재의 원료 및 제품의 열 · 역학적 특성을 분석해 신뢰성을 평가할 수 있다. 특히 보관 · 운송과정에서 포장의 안전 보장을 위한 환경 시뮬레이션을 실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

식품용 기구 및 용기 · 포장분야에서는 자가품질위탁시험검사서비스(식품위생법 제31조. 자가품질검사의 의무), 기구 · 용기 · 포장 재질별 잔류 및 용출시험, 식품용 기구 · 용기 · 포장 및 위생용품의 미생물 시험검사, 목적에 맞는 성적서 발행 및 표시제도(labelling standard) 등을 할 수 있다.

한편 KOTITI시험연구원은 지난해 12월 (사)한국포장협회와 업무 협약을 맺고 포장협회 회원사에게 포장재 재질 · 구조 시험분석 수수료를 15~20% 할인해 제공하고 있다.

포장재 시험분석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KOTITI시험연구원에 문의하면 된다(담당자: 조진협 선임연구원 02-3451-7324, jh_jo@kr.kotiti-global.com).

CJ제일제당

햇반' 용기 직접 재활용 나섰다

‘지구를 위한 우리의 용기’ 캠페인

CJ제일제당이 재활용이 가능함에도 대부분 폐기되는 햇반 용기를 직접 회수해 가치 있는 자원으로 재탄생시킨다.

CJ제일제당은 소비자가 사용한 햇반 용기를 직접 수거하는 ‘지구를 위한 우리의 용기’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1월 11일 밝혔다. 시범 운영하면서 가능성을 타진한 뒤 전국에 오프라인 거점을 마련해 회수율을 높일 계획이다.

이번 캠페인은 CJ제일제당의 자사물인 CJ더마켓에서 진행된다. 햇반과 수거박스가 함께 담긴 기획 세트를 구입한 뒤 사용한 햇반 용기 20개 이상을 담아 돌려보내면 택배사(CJ대한통운)를 통해 회수된다. 수거박스에 있는 QR코드만 찍어 신청한 뒤 집 앞에 두면 된다. 용기가 회수될 때마다 CJ ONE 포인트 1,000점도 받을 수 있다.

수거된 햇반 용기는 지역자활센터에서 분리 및 세척 과정을 거친 뒤 원료화 작업을 통해 명절 선물세트 트레이 등에 사용된다. 이 과정에서 지역자활센터는 고용을 늘리고, CJ제일제당과 계약한 업체에 원료로 납품해 수익도 얻는다. CJ제일제당은 햇반 업사이클링뿐만 아니라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및 수익원도 마련해주는 등 친환경 CSV(공유가치창출)사업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온라인 시범 운영 뒤 햇반 용기의 수거율을 높이기 위해 향후 오프라인 회수 거점도 마련할 예정이다.

전국 각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와 대형마트 등에 ‘햇반 용기 전용 수거함’을 설치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올해 400만개의 용기를 회수한다는 목표다. 회수량이 충분히 확보되면 CJ대한통운과 함께 친환경 물류용 파렛트 등으로 적용을 확대해 재활용 가치를 더욱 높일 계획이다.

이와 별개로 CJ제일제당은 햇반 용기를 만드는 과정에서 남은 플라스틱(스크랩)을 햇반 용기에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친환경 패키징 기술을 개발해 플라스틱 배출을 줄이고 있다. 이 기술은 CJ제일제당 패키징센터가 4년간의 연구를 통해 지난해 개발해 현재 부산공장에서 시범 운영 중이며, 올해 안에 햇반 최대 생산시설인 진천BC에도 적용할 예정이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햇반 용기 수거 캠페인이 ‘환경을 위한 자원순환 플랫폼’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면서 “앞으로도 진정성을 갖고 플라스틱 저감을 위한 노력을 통해 지속가능경영(ESG)을 적극 실천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심

라면에 친환경 포장재 사용 확대

투명한 비닐로 교체 등

농심이 라면의 친환경 포장재 사용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농심은 최근 무과마탕면 묶음포장을 기존 빨간색 비닐에서 투명한 비닐로 교체하고, 앞면과 옆면에 브랜드 디자인과 표기사항 등 최소한의 내용만 삽입했다고 밝혔다.

포장재를 투명 비닐로 바꾸면 인쇄에 사용하는 잉



▲ CJ제일제당은 소비자가 사용한 햇반 용기를 직접 수거하는 ‘지구를 위한 우리의 용기’ 캠페인을 진행한다.



▲ 농심은 무파마탕면 묶음포장을 기존 빨간색 비닐에서 투명한 비닐로 교체하고 앞면과 옆면에 브랜드 디자인과 표기사항 등 최소한의 내용만 삽입했다.

크 사용량 절감은 물론, 재활용 효율성이 높아지는 등 자원의 절약과 순환 촉진 효과가 있다. 특히 농심은 인쇄용 잉크 사용량을 연간 5톤 이상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농심은 지난해 6월 생생우동 묶음 포장을 밴드로 감싸는 방식으로 교체해 연간 약 10톤의 플라스틱 필름 사용량을 줄인 바 있다. 농심은 친환경 라면 묶음 포장법으로 밴드형태의 포장과 투명 비닐 두 가지 방법을 시행해본 뒤 물류와 유통 과정에서 접수되는 소비자의 의견을 반영해 타 제품으로 확대 적용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농심 관계자는 “친환경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생각으로 사소한 것도 놓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바뀌어 나가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되겠다” 라고 말했다.

풀무원

친환경 샐러드 용기 '친환경 인증' 획득

바이오 페트 재질, 국내 처음으로

ESG 대표 선도기업 풀무원(대표 이효율)이 국내 최초로 개발하여 선보인 바이오 페트(Bio-PET)



▲ 풀무원이 국내 최초로 개발하여 선보인 바이오 페트(Bio-PET) 재질의 친환경 샐러드 용기로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부터 환경표지 인증을 획득했다.

재질의 친환경 샐러드 용기로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부터 환경표지 인증을 획득했다고 1월 17일 밝혔다.

환경표지 인증은 생산, 유통, 사용, 폐기 등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 및 자원의 소비를 줄이고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친환경 제품을 선별해 친환경 로고(환경 표지)와 간단한 설명을 표시하도록 하는 국가 공인 인증제도다. 이러한 인증 마크를 통하여 소비자들에게 친환경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들은 환경친화적인 제품을 쉽게 선택할 수 있다.

풀무원은 이번 인증 평가에서 바이오 페트 샐러드 용기의 탄소 배출 감소 효과와 재활용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환경표지 인증을 획득하게 됐다.

앞서 풀무원은 바이오 페트 샐러드 용기로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패키징기술센터가 주관하는 제15회 대한민국 패키징대전에서 ‘한국포장기술사회장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풀무원의 포장 혁신을 추진하는 풀무원기술원이 개발해 선보인 ‘바이오 페트’는 구성 원료 중 일부를 사탕수수 추출 원료로 적용해 친환경성을 높인 포장 소재다.

일반 페트(PET)는 석유에서 추출한 원료 100%로

구성돼 있는 반면 바이오 페트는 사탕수수 유래 추출물을 30% 함유하여 제조, 유통, 소각 전 과정에서 이산화탄소(CO₂) 발생량을 약 20% 줄이는 효과가 있다. 100% 재활용이 가능하다는 것도 장점이다.

풀무원은 직장인들이 즐겨 찾는 건강 도시락인 '샐러드' 제품 용기에 친환경 소재인 바이오 페트를 적용해 풀무원의 스마트 무인식당 '출출키친', '풀무원푸드앤컬처'가 운영하는 기업 급식 사업장 등에서 선보이고 있다. 이번 환경표지 인증 획득으로 신규 제작되는 바이오 페트 샐러드 제품 패키지에 환경부 '친환경' 마크를 부착하여 친환경 포장을 소비자에게 커뮤니케이션할 계획이다.

풀무원기술원 이상윤 원장은 "풀무원은 '사람과 자연을 함께 사랑하는 로하스(LOHAS) 기업'이라는 미션 아래 '환경을 생각한 포장 원칙'을 수립하고 주요 제품에 환경을 생각한 포장을 적용하고 있다"며 "친환경 혁신 포장 소재 및 제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업계 전반에 친환경 경영을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풀무원녹즙

제10회 잇-어워드' 음료대상수상

신선 원료 강조한 디자인의 클렌즈랩 시리즈

풀무원이 신선한 원료의 색감을 강조한 깔끔한 디자인으로 국내 대표 패키지 디자인상을 수상했다. 풀무원녹즙(대표 박성후)은 최근 사단법인 한국디자인산업연합회가 주최한 국내 대표 디자인 시상식 '제10회 잇-어워드(it-Award)'에서 디자인 우수성을 인정받아 패키지 디자인 음료 부문 '대

상'을 수상했다고 1월 20일 밝혔다.

'잇-어워드(it-Award)'는 한국디자인산업연합회에서 그 해의 가장 우수한 디자인과 프로젝트를 선정해 시상하는 국내 대표 디자인 어워드이다. 2011년 시작해 현재까지 10회째 운영되고 있다. 국내 디자인 산업 전문가들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총 7개 디자인 분야에 대해 시상하고 있다.

풀무원녹즙은 가벼운 하루를 돕는 클렌즈 음료 '클렌즈랩(레드, 그린, 옐로우)'으로 '잇-어워드' 음료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한국디자인산업연합회는 풀무원녹즙 클렌즈랩의 대상 수여 사유에 대해 간결하고 최소화된 그래픽 디자인으로 고객에게 제품 인지성을 향상시키고 원료의 신선함과 색채에 집중한 미니멀한 디자인을 추구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고 밝혔다.

풀무원녹즙은 과일과 채소의 영양만으로 효율적인 영양 공급을 돕는다는 제품 특징을 패키지 디자인을 통해 쉽게 전달하고자 했다. 소비자가 레드비트와 케일, 칼라만시 등 원료의 컬러감(Green, Red, Yellow)과 신선함을 잘 느낄 수 있도록 투명 용기와 블랙 라벨을 심플하고 트렌디하게 적용했다. 또한 용기 라벨 측면의 심볼릭한 아이콘을 통해



▲ 신선한 원료의 색감을 강조한 깔끔한 디자인으로 국내 대표 패키지 디자인상을 수상한 풀무원녹즙의 클렌즈 음료 '클렌즈랩(레드, 그린, 옐로우)'

컬러별 신선 원재료를 강조했다.

풀무원녹즙 김정희 마케팅 담당은 “트렌디한 신선 원료를 기반으로 한 클렌즈랩은 고객의 건강을 생각한 음료로 많은 고객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며 “앞으로 더욱 다양한 소재를 활용해 고객 니즈에 부합하는 제품을 기획하고 환경을 생각한 친환경 디자인으로 고객들과 더욱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LG화학

플라스틱 화학적 재활용 나선다

국내 최초 초임계 열분해유 공장 건설

LG화학이 플라스틱 순환 경제 구축을 위한 화학적 재활용 사업에 본격 진출한다. 이는 탄소 저감에 기여할 수 있는 친환경 소재 중심으로 사업구조를 지속 전환하기 위해서다.

LG화학은 2024년 1분기까지 충남 당진에 국내 최초의 초임계 열분해유 공장을 연산 2만 톤 규모로 건설한다고 1월 18일 밝혔다.

열분해유는 사용된 플라스틱에서 추출 가능한 재생 연료로, 새로운 플라스틱 생산을 위한 원료로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그동안 쉽게 재활용되지 못하고 버려진 과자 봉지, 즉석밥 비닐 뚜껑, 용기 등 복합재질(OTHER)의 PE(폴리에틸렌), PP(폴리프로필렌)를 열분해시킨 뒤 가장 초기 원료인 납사(Naphtha)를 추출해 다시 석유화학 공정에 넣는 것이다.

이 공장에는 고온·고압의 초임계 수증기로 혼합된 폐플라스틱을 분해하는 화학적 재활용 기술이 적용된다. 초임계 수증기란 온도와 압력이 물의 임

계점을 넘어선 상태에서 생성되는 특수 열원이다. 이는 액체의 용해성과 기체의 확산성을 모두 가지게 돼 특정 물질을 추출하는데 유용하다.

또한 직접적으로 열을 가하는 기술과 달리 열분해 과정에서 탄소 덩어리(그을림) 생성을 억제해 별도의 보수 과정 없이 연속 운전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약 10톤의 비닐·플라스틱 투입 시 8톤 이상의 열분해유를 만들 수 있어 생산성 또한 업계 최고 수준이다. 나머지 2톤가량의 부생 가스는 초임계 수증기 제조 등 공장 운전을 위한 에너지로 재사용된다.

이를 위해 LG화학은 초임계 열분해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영국의 무라 테크놀로지(Mura Technology, 이하 무라·Mura)와 협업한다. LG화학은 지난해 10월 화학적 재활용 분야의 밸류 체인 강화를 위해 무라(Mura)에 지분 투자도 진행했다. 최근에는 무라(Mura)의 기술 판권을 가지고 있는 미국의 글로벌 엔지니어링·서비스기업인 KBR(Kellogg Brown & Root)과 기술 타당성 검토를 마치고 공장의 기본 설계를 위한 공정 라이선스 및 엔지니어링 계약을 체결했다.

열분해유 공장이 본격 가동되면 LG화학은 실질적인 제품 검증 및 향후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추가적인 증설도 검토할 계획이다.

시장조사업체 등에 따르면 전 세계 화학적 재활용 시장은 폐플라스틱에서 추출 가능한 열분해유 기준 2020년 70만 톤 규모에서 2030년 330만 톤 규모로 연평균 17%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LG화학은 열분해를 비롯한 화학적 재활용 기술을 자체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관련 재활용 기술 및 원재료를 보유한 연구기관, 중소기업, 스타트업 등과의 협력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NEW PRODUCTS]

오리온

'2022 새해 흥!하자'
선물세트
출시



오리온은 설 명절을 맞아 온라인 전용 한정판 '2022 새해 흥!하자' 선물세트를 출시했다고 1월 11일 밝혔다.

2022 새해 흥!하자 선물세트는 범띠 해에 출시된 대표 과자인 '초코과이情'을

비롯해 '호떡품은 참붕어빵', '포도알맹이' 등 남녀노소 모두가 좋아하는 오리온 인기 간식 8종을 담았다. 임인년 호랑이해를 맞아 케이스에는 귀여운 호랑이 캐릭터와 '情'을 새긴 빨간색 복 주머니를 디자인해 설 분위기를 살렸다. 딱지 만들기 세트도 함께 들어 있어 설날 가족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재미 요소도 더했다.

이번 선물세트는 3,000박스 한정으로 쿠팡, G마켓, SSG 닷컴 등 온라인 채널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카카오톡 선물하기로 가족, 친구 등 사랑하는 이들에게 선물할 수도 있다. 특히 랜덤하게 들어 있는 황금 딱지를 찾아 인스타그램에 인증하면 오리온의 인기 과자들을 상품으로 받을 수 있는 '황금딱지를 찾아라' 이벤트도 진행할 계획이다. 오리온 관계자는 "코로나 상황에서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담은 선물을 전할 수 있도록 흥!하자 선물세트를 출시했다"며 "올해에도 언택트시대에 적합한 다양한 시즌별 온라인 전용 상품을 지속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농심

'옥수수깁 하바나
옥수수맛'
출시



농심이 스낵 신제품 '옥수수깁 하바나옥수수맛'을 출시했다. 하바나옥수수는 옥수수에 버터, 치즈, 파프리카 시즈닝 등을 뿌려 먹는 요리로 특유의 달콤하고 고소한 맛이 매력적이다.

한번 먹기 시작하면 멈출 수 없을 만큼 강한 중독성을 가지고 있어 우리나라에서는 '마약옥수수'라고 불리기도 한다.

농심이 출시한 '옥수수깁 하바나옥수수맛'은 통옥수수 형태에 매콤하면서도 고소한 단

맛을 더한 제품이다.

동글동글한 옥수수알 모양으로 보는 재미는 물론, 입안에서 툭툭 터지는 식감까지 살렸다.

농심 옥수수깡은 지난 2020년 전국을 뒤덮은 깡열풍에 힘입어 선보인 제품이다. 1973년 출시한 고구마깡 이후 47년 만에 선보인 새로운 깡스낵이라는 점에서 출시 초반부터 뜨거운 인기를 얻었다.

현재 옥수수깡은 출시 1년여 만에 매출액 100억 원을 달성하며 스낵시장에서 입지를 다지고 있다.



오뚜기가 로제소스에 치즈를 더한 ‘치즈로제파스타 라면’을 출시했다.

최근 식품·외식업계에서 불고 있는 ‘로제소스’ 열풍에 힘입어 선보인 이번 제품은 새콤달콤한 토마토소스와 고소한 크림과 진한 치즈소스의 조화가 돋보이는 파스타 라면이다.

치즈로제파스타 라면은 ▲라면 ▲액체수프 ▲건더기수프 ▲리얼치즈소스 등으로 구성됐다.

이 중 체다 치즈를 사용한 ‘리얼치즈소스’는 오뚜기의 레토르트 기술과 유화 노하우를 활용해 만든 액상 치즈소스로, 부드러운 마스카르포네 치즈와 어우러져 입안 가득 풍부한 치즈의 맛을 선사한다.

또한 이 제품은 꾸덕한 소스가 잘 배어드는 통통한 면발을 적용했으며, 총 145g 중량으로 구성돼 든든한 한 끼 식사로 손색없다.

오뚜기 관계자는 “부드럽고 고소한 로제소스와 진한 치즈가 조화를 이루는 치즈로제파스타 라면은 색다른 맛을 선호하는 소비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간 쌓아온 오뚜기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활용해 앞으로도 소비자들의 다양한 입맛을 반영한 제품을 선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오뚜기

‘치즈로제파스타 라면’

출시

오뚜기

‘X.O. 만두’
신제품 2종
출시



본격적인 겨울로 접어든 요즘, 냉동만두 시장에 김이 피어오르고 있다.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냉동만두 시장은 약 5,455억 원 규모로, 2018년 4,912억 원, 2019년 5,078억 원에 이어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장

기화되면서 집밥 선호 현상이 확대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오뚜기는 ‘X.O. 만두’ 신제품 2종을 출시해 시장 공략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신제품은 ▲X.O. 교자 고기&제주마늘 ▲X.O. 미니군만두 고기 등 2종으로, 당면 없이 알차게 짭 채운 속이 특징이다. X.O. 교자 고기&제주마늘은 당면 대신 마늘과 고기로 속을 채운 제품으로, 제주산 생마늘을 하루 동안 숙성시켜 만든 특제 마늘소스와 국내산 돼지 고기 및 각종 야채가 어우러져 감칠맛을 선사한다. 우수 진공 반죽법을 사용해 더욱 얇고 찰기 있는 식감의 만두피를 적용했으며, 찐만두·군만두·만둣국 등으로 다양하게 조리해 즐길 수 있다. 함께 선보인 X.O. 미니군만두 고기는 당면이 아닌 국내산 돼지고기로 속을 채웠다. 한입에 쏙 들어가는 크기와 바삭한 식감이 특징으로, 에어프라이어에 약 5~6분 또는 전자레인지에 약 2분간 데워 간편하게 완성할 수 있다. 가벼운 술안주나 아이들 간식은 물론 떡볶이·쫄면·짜장면 등의 토핑으로 활용하기 좋으며 탕수만두·만두강정 등 여러 메뉴로 응용할 수 있다. 오뚜기 관계자는 “내식 증가로 점차 늘어나는 냉동만두 수요에 발맞춰 X.O. 만두 신제품 2종을 출시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최고의 재료를 아낌없이 사용해 풍부한 맛과 식감을 지닌 제품들을 지속해서 선보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원F&B

‘양반 인생맛집 만두’
출시



동원F&B(대표이사 김재욱)가 만두피를 황금비율 17%로 빚은 ‘양반 인생맛집 만두’ 2종(고기, 김치)을 출시했다고 1월 18일 밝혔다. 양반 인생맛집 만두 2종은 만두피의 비율을 전체 만두의 17%

까지로 줄이고 만두소를 가득 채운 프리미엄 냉동만두 제품이다. 동원F&B는 전국의 수많은 만두 맛집을 탐방해 만두피의 황금비율 17%를 개발했다. 만두피가 얇으면서도 쉽게 찢어지지 않아 식감이 쫄깃하고 만두소를 듬뿍 넣어 풍미가 살아있는 것이 특징이다.

양반 인생맛집 만두 2종은 국산 돼지고기는 물론 양배추·양파·대파·애호박·대추 등 각종 자연재료를 큼직하게 썰어 넣어 만두소의 식감이 풍부하며, 조리 후 식감이 딱딱해지고 밀가루 맛이 날 수 있는 만두피 접합 부분(날개)을 최대한 제거해 맛이 더욱 담백하다. 만두피 자체도 밀가루와 전분을 최적의 비율로 배합해 더욱 차진 것이 특징이다.

양반 인생맛집 만두는 고기만두와 김치만두 등 2종으로 구성됐으며, 찢만두나 군만두는 물론 만둣국·만두전골 등 다양한 방식으로 조리할 수 있다. 또한 만두피가 얇아 에어프라이어로 조리해도 만두가 굳지 않고 속까지 촉촉하게 익어 맛있게 즐길 수 있다.



동원F&B(대표이사 김재욱)가 설을 맞아 건강과 환경을 생각하는 착한 선물세트 등 200여 종의 다양한 ‘동원 설 선물세트’를 선보였다.

동원F&B는 최근 건강과 면역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크게 높아진 만큼 건강한 선물세트를 콘셉트로, 짜지 않은 고급 캔햄 리챔 선물세트와 고단백 동원참치 선물세트에 주력한다. 올해 설에는 ‘로우 푸드(Low Food)’ 트렌드에 맞춰 나트륨과 지방 함량을 동시에 낮춘 리챔 더블라이트로 구성된 ‘리챔 프리미엄 5호’ 등을 처음 선보이며 건강성과 실용성을 강화했다.

또한 동원F&B는 플라스틱 포장재를 완전히 없앤 ‘올페이퍼 패키지(All-paper package)’ 선물세트와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생산한 ‘동원 MSC 인증 가다랑어 사용 참치세트’ 등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트렌드에 맞춘 다양한 친환경 선물

동원F&B

‘동원 설 선물세트’
200여 종
출시

세트도 선보인다. 동원F&B는 2020년 추석 업계 최초로 종이만으로 만든 올페이퍼 (All-paper package) 패키지 선물세트를 선보였다. 올페이퍼 패키지 선물세트는 포장에 사용되는 플라스틱 용기를 종이로 교체하고 기존 부직포 가방이 아닌 종이 가방에 담아 모든 포장을 완전히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한 제품이다.

동원 설 선물세트 대표 품목으로는 실속 복합세트인 ▲동원튀나리챔 100호(동원 참치 살코기 135g 12캔 · 리챔 오리지널 200g 4캔) ▲참치 단독세트 진호(동원참치 살코기 150g 14캔 · 고추참치 150g 4캔 · 야채참치 150g 4캔 · 김치찌개용참치 150g 4캔) ▲리챔 단독세트 리챔 3호(리챔 오리지널 200g 6캔 · 리챔 오리지널 340g 6캔) 등이 있다.

투썸플레이스

2022 설 선물세트 6종
출시



투썸플레이스는 설 명절을 앞두고 소중한 사람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할 설 선물세트를 출시한다고 1월 6일 밝혔다.

이번에 선보이는 투썸의 설 선물세트는 마음(heart)을 테마로 새로운 변화와 건강한 일상을 기원한다는 의미를 담아 기획했다. 고품질 스테인리스 텀블러를 함께 구성해 지속 가능한 가치를 더한 ‘투썸×락앤락 하트홀릭’과 커피 애호가를 위해 다양한 홈카페 제품으로 꾸린 ‘투썸 커피홀릭’ 2가지 라인으로, 단품 구

매 시보다 최대 30% 할인된 1~3만원대로 만나볼 수 있다.

‘썸×락앤락 하트홀릭’ 라인은 스테인리스 소재의 락앤락 텀블러를 포함했다. ▲하트홀릭I은 스틱커피와 심플한 스텐 머그컵 ▲하트홀릭II는 스틱커피와 핸드드립 커피, 사무실 외 차량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텀블러로 구성했다. ▲하트홀릭III는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 커피를 즐길 수 있도록 디카페인 스틱커피와 함께 손잡이가 달린 스트랩 텀블러를 담았다.

투썸 커피홀릭 라인은 언제 어디서나 여유롭고 편안하게 커피 타임을 가질 수 있도록 홈카페 브랜드 에이리스트 제품(aList)으로 다채롭게 구성했다. ▲커피홀릭I은 라떼 2종(초콜릿 라떼, 바닐라 라떼)과 머그컵으로 꾸렸다. ▲커피홀릭II는 투썸플

레이스의 다양한 홈카페 제품을 즐길 수 있는 버라이어티팩으로, 스틱커피 6팩, 초콜릿 라떼 2팩, 바닐라 라떼 1팩으로 구성했다. ▲커피홀릭III는 아웃도어족을 겨냥해 투썸의 블랙그라운드 원두 1팩(200g)과 원두를 간편하게 내려 마실 수 있는 휴대용 드립 세트(핸드드립 그라인더, 드리퍼, 텀블러)를 포함했다.

투썸플레이스 홍보 담당자는 “집뿐만 아니라 캠핑 등 야외에서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커피와 텀블러, 머그 등으로 구성된 선물세트를 선보이게 됐다”며 “예년 대비 빨라진 설날에 맞춰 투썸이 세심하게 준비한 선물세트로 소중한 분들에게 전할 마음을 담은 선물을 미리 준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LG생활건강이 2022년 설을 맞아 화장품, 생활용품 선물세트를 출시했다고 1월 17일 밝혔다.

LG생활건강 궁중 럭셔리 화장품 브랜드 ‘후’는 궁의 다채로운 단청 문양 모티브로 한 디자인으로 새해 희망과 안녕을 기원하는 마음을 전할 수 있는 ‘후 비침 자생 에센스 2종 세트’를 선보인다. 부

귀와 다복, 장수 등 오복을 염원하는 단청 무늬를 세트 케이스에 다채롭게 물들이며 소장 가치를 높였다.

자연·발효 화장품 ‘숨37’은 민감 피부를 위한 럭셔리 리추얼, ‘숨37 로시크숨마 아티잔 스페셜 세트’를 선보인다. 고귀한 예술품을 섬세하게 만드는 장인 정신을 담아낸 아티잔 스페셜 에디션은 섬세한 커팅과 반짝이는 장식으로 눈길을 사로잡는다. 이번 세트는 8가지 안티에이징 효과를 선사하는 대표 에센스인 숨마 엘릭서 에센스 미니어처를 비롯해 검은 호랑이의 해를 맞아 특별한 디자인을 적용한 워미에르 선 프로텍터를 증정하는 등 더욱 다양하고 풍성한 구성으로 소중한 이들에게 마음을 전하는 선물로 제격이다.

감성적 피부과학 브랜드 오휘(OHUI)가 ‘더 퍼스트 제너츄어 아이크림 더 클래식 컬렉션’을 선보이며 2022년 한 해 동안 클래식 명곡과 함께 전개할 ‘더 클래식 컬렉션’의 화려한 서막을 올린다. ‘더 클래식 컬렉션’은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고귀한 가치를 지니는 클래식 음악의 미학에 주목해 시공을 초월하는 영원한 아름다움과 빛나는 품격을 주제로 오휘가 22년 한 해 동안 전개하는 스페셜 컬렉션이다.

LG생활건강

2022 설 화장품 · 생활용품
선물세트
출시

오래 더 퍼스트 제너츠티어 라인의 베스트셀러들로 선보일 '더 클래식 컬렉션'은 고전주의 클래식 명곡이 각 컬렉션 제품의 테마곡으로 함께할 예정이며, 오늘날까지 사랑받는 클래식 명곡의 스토리를 재해석한 스페셜 디자인으로 '더 클래식 컬렉션'만의 가치를 소개한다.

LG생활건강은 이자녹스에서 재조합 태반 핵심 성분을 담아 피부의 근본을 확실하게 변화시키고 피부에 찬란한 힘을 되찾아 주는 최고급 라인 '이자녹스 테르비나 AD 3종 스페셜 세트'를 이번 설을 맞아 처음 선보였다. 매일 특별한 관리를 받은 듯 더욱 찬란하게 빛나는 피부로 거듭나는 경험을 선사하며 고급스러우면서도 모던한 감각의 용기에 담겨 소중한 분께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기 좋다.

프리미엄 한방 브랜드 '수려한'은 브랜드 20주년과 설을 맞아 럭셔리 안티에이징 케어가 가능한 '수려한 천삼 럭셔리 4종 스페셜 에디션'을 출시했다.

이번 패키지는 한국의 설을 대표하는 복주머니의 디자인을 모티브로 해 수려한만의 고급스러움을 표현한 것이 특징이다. 까치와 나비는 설 특유의 분위기와 한국 전통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며, 예로부터 복을 기원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 새해맞이 선물로 주고받으며 2022년에는 더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전달하기 좋다.

자연주의 한방 화장품 브랜드 '예화담'은 깊은 영양감으로 피부의 격을 높여주는 토털 안티에이징 '예화담 환생고 크림 듀오 스페셜 세트'를 선보인다.

이번 '환생고 크림 듀오 스페셜 세트'는 환생고의 대표 성분인 천혜명의단 중 모란을 한국의 전통 자개 공예로 모던하게 재해석해 예화담의 차별하고 단아한 정취를 표현했다.

임인년 새해를 맞아 길상화 속 호랑이 모습을 인상적으로 표현한 '로얄셀렉션 범 에디션 69호'를 한정 수량으로 선보였다. 가정에서 많이 사용되는 제품들만을 선별해 구성한 이 세트에는 재구매율 1위 탈모케어 브랜드 닥터그루트의 대표 제품인 힘없는 모발용 샴푸, 리엔 로열젤리 샴푸 컨디셔너 등 헤어케어와 바디워시, 치약 및 칫솔 등이 다양하게 구성돼 받는 이들에게 '범상치 않은 한해'를 선물할 수 있다.

또한 율놀이, 딱지치기, 팽이 등 전통놀이 3종이 혼합돼 가족과 따뜻한 명절을 보내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은 '까치와 호랑이 민속놀이 세트', 라이프 스타일 브랜드 위글위글과의 콜라보레이션으로 보기만 해도 기분 좋아지는 밝고 경쾌한 분위기를 전달하는 '위글위글×프리미엄 셀렉션', '위글위글×벨먼 스파바디워시 세트' 등 기존 생활용품 세트와는 차별화된 실용적이면서 유티 있고 의미가 담긴 디자인의 선물세트를 선보였다.



LG생활건강

‘빌리프 뉴메로 10 에센스
점보 비비디 파크 에디션’
출시

LG생활건강(대표 차석용)이 빌리프 베스트셀러인 ‘뉴메로 10 에센스’의 대용량 점보 에디션인 ‘뉴메로 10 에센스 점보 비비디 파크 에디션’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트루 허브 코스메틱 브랜드 빌리프가 선보인 이번 에디션은 뉴메로 10 에센스를 기존 용량 대비 1.6배인 200mL로 증량한 1년에 단 한 번 선보이는 대용량 점보 에디션이다.

‘뉴메로 10 에센스’는 세안 후 급격히 사라지는 수분을 빠르게 잡아줘 일명 ‘옥실 에센스’로 불리는 수분 보호 에센스이다. 세안 후 얼굴에 물기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옥실에 두고 바로 사용하면 피부의 수분과 윤기 레벨을 각각 57%, 15%까지 끌어올려 건조함 없이 촉촉함을 유지해준다.

특히 빌리프는 이번 에디션을 통해 브랜드 스토리텔링이 담긴 세계관인 ‘빌리프 유니버스’를 처음으로 공개한다. 빌리프 유니버스 속 등장인물인 빌리프숍 점원 빌리가 무엇이든 때리면 10초 가득 채워지는 요정 로이의 ‘텐텐망치’를 얻기 위해 신비로운 테마파크 비비디 파크(Vividi Park)로 모험을 떠난다는 스토리를 담고 있다. 빌리·로이·텐텐망치·비비디 파크 등 빌리프 유니버스의 주인공들을 귀여운 일러스트 스티커 북도 동봉돼 에디션만의 특별함을 더했다.

빌리프 담당자는 “최근 주요 소비층인 MZ세대에게 어필하기 위해 브랜드 가치를 전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형 세계관이 주목을 받고 있다”며 “세안 직후 10초 안에 사라지는 수분을 지켜주는 뉴메로 10 에센스의 비비디 파크 에디션 스토리에 이어 앞으로 빌리프 유니버스의 스토리는 다른 제품을 통해서도 지속해서 공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